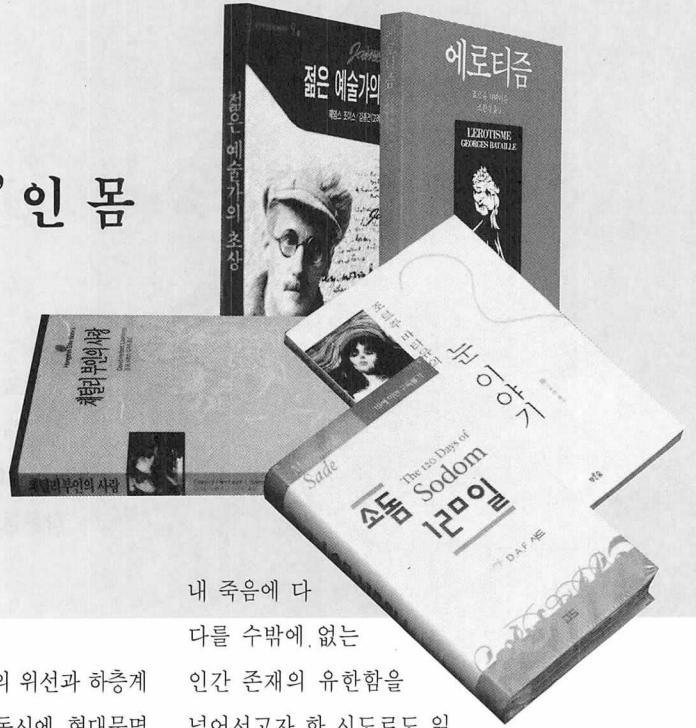


‘관능의 결정체’ 이자 ‘위반의 무기’ 인 몸

예술과 외설 사이에서 줄타기해온 몸의 역사

몸은 솔직하게 말해질 때 시대의 지탄을 받는다. 몸의 관능성에 매료된 많은 작가들은 ‘외설과 예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다. 몸은 관능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만이 아니었다. 때로는 금기를 위반하는 ‘무기’로, 때로는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넘어 ‘지고’에 다다르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의 한 자리를 차지해왔다.



내 죽음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넘어서고자 한 시도로도 읽
히는데, 결국 이들의 작업은 릴케의 지적처럼,
‘지고’를 향하는 긍정적인 시도로 수렴된다. 그
대표적 인물이 ‘저주받은 사회학자’인 조르주
바타이유다. 그의 책 《에로티즘》(조한경, 민음사)
은 에로티즘의 본질을 파헤친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적 세계’의 완성이란 금기와 절제
만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
히려 이들로부터 출현하는 위반과 도발, 에로티
시즘적 역설로 인한 전복과 위반의 순간들에서
인간성 또한 확립된다고 말한다. 바타이유의 소
설 《눈 이야기》와 《하늘의 푸른 빛》을 읽고 있는
《눈 이야기》(이재형, 푸른숲)는 허위와 억압의
세계에 대한 대항체로서 몸을 역설하고 있다.

D. A. F. 사드는 모르더라도 사디즘이라는 말
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의 이름에서
가학적 율란증을 지칭하는 ‘사디즘’이라는 말이
나왔다. 사드의 소설 《소돔 120일(전2권)》(황수
원 외, 새터)은 근친상간, 남색, 사도-마조히즘
등 온갖 성적 판타지가 난무하고 있는 작품이다.
데카메론의 구조를 빌린 이 작품은 일기 형식으
로 온갖 종류의 섹스를 묘사하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가학적 성고문을 통해 극적인 공포감을
표현했다. 《사랑의 죄악》(이형식, 장원)은 근친
상간·친자살해·친모살해를 소재로 한 5편의
작품을 실고 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과 사회적 통념에 대한 반항이라는 두가지
주제가 이 책의 골격이다. — 최갑수 기자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육체적인 환락이란 “관능
적인 체험이며 순수한 직관이거나 아름다운 열
매를 맛보게 되는 순수한 감정 바로 그것”이라
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에로티시즘은 결코 불온
하거나 불결하지 않다. 에로티시즘은 가장 순수
한 상태에서 촉발되며, 우리에게 지고의 순간을
맛보게 한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오용과 낭비가
문제인데, 릴케 역시 “그 체험을 단순한 방심상
태나 자극으로써 그들의 삶의 지친 자리를 배우
려는 게 나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설의 족쇄 찢던 예술작품들

작가들에게 몸은 무한한 탐구의 대상이다. 몸은
그들의 손을 거치면서 ‘관능의 결정체’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에로티시즘, 혹
은 관능은 때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작가들은 ‘외설과 예술 사이에서’ 위태
로운 줄타기를 해야만 한다. 당대는 그들을 인정
하지 못했지만, 후대는 그들을 추앙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세르반테
스의 《돈키호테》도 외설시비에 시달렸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와 《젊은 예술가의 초상》도
마찬가지다. 성불구자 남편을 둔 영국상류층 여
성 코니가 시골 저택의 건강한 산지기 멜러즈와
사랑을 나누면서 생명의 원초적 본능에 눈뜨다
는 내용을 담고 있는 D. H. 로렌스의 《채털리 부
인의 사랑》은 ‘외설이나 예술이냐’를 말할 때 언
제나 인용되는 고전이다. 이 소설은 1928년 씌어
졌지만 1960년이 돼서야 무삭제 출간될 수 있었

다. 이 소설은 중산계급 사람들의 위선과 하층계
급 사람들의 비애를 묘사하는 동시에, 현대문명
속에서 퇴색된 ‘사랑’의 본질을 찾고 있다.

헨리 밀러만큼 ‘뼈땀한 시선’을 받고 있는 작
가도 드물 것이다. 그가 발표하는 작품들은 끝없
이 외설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북회귀선》(김진
욱, 문학세계사)은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
준 작품.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사랑하는 한 여
류작가의 자유분방한 성 편력을 그린 이 소설은
외설시비로 인해 프랑스에서 먼저 발표됐고, 30
년 후 미국에서 출간됐다. 이 소설로 인해 그의
집은 방화당했고 그의 작품을 판 서적상이 50명
이나 구속됐다. 이 작품이 ‘문학’으로 되살아난
것은 이 소설이 여러 초현실적인 기법들로 주인
공의 심리를 밀도 있게 그려 ‘현대소설의 기원’
으로 평가받은 뒤였다. 국내에서도 정병식의 《자
유부인》(고려원),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
봐》(김영사), 마광수의 《가자, 장미여관으로》(자
유문학사), 《즐거운 사라》(청하) 등의 외설 논란
을 통해 에로티시즘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쟁점
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몸은 솔직하게 이야
기될 때 지탄받았던 것이다.

금기를 깨트리는 ‘무기’로서의 에로티시즘

동서고금의 많은 작가들은 몸을 금기를 깨트리
기 위한 ‘위반의 무기’로 활용했다. 그들이 보여
준 변태적 성행위와 근친상간 등 위반적이고 불
온한 에로티시즘은 한 시대와 세상을 풍자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로 이런 불온함은 끝